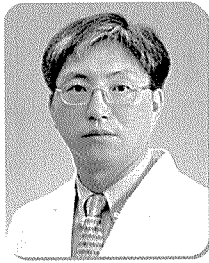


당뇨병과 남성 성기능 장애



이 중 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 교실 교수

발기부전이란 과거에는 임포텐스라고 불리어 왔던 질환으로 임포텐스 보다는 발기부전이 정확한 명칭이다. 발기부전의 정의는 만족할 만한 성생활을 영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기가 안 되거나, 발기가 되도 끝까지 유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당뇨병과 성기능은 관련이 있나?

당뇨병이 있는 남성의 35~75% 정도가 발기부전을 경험할 정도로 당뇨병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고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성기능장애가 일찍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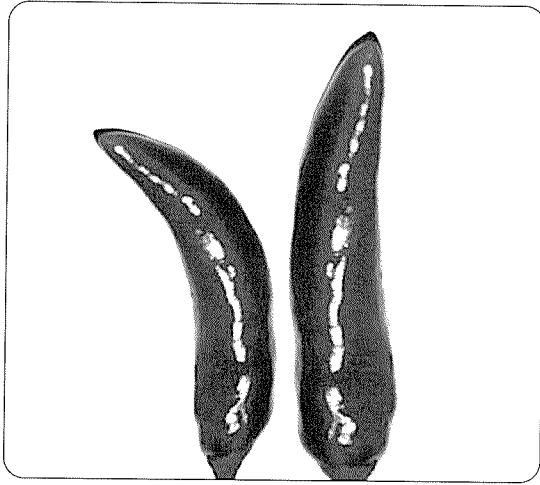
발기부전이란 과거에는 임포텐스라고 불리어 왔던 질환으로 임포텐스 보다는 발기부전이 정확한 명칭이다. 발기부전의 정의는 만족할 만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발기가 안 되거나, 발기가 되도 끝까지 유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상상하는 만큼 발기부전도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발기부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원인질환을 찾다 당뇨병을 발견하는 수도 적지 않다.

발기부전은 제 1형과 2형 당뇨병에 모두에서 초래되나 제 1형 보다는 좀 더 노령층에 발생하는 제 2형이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식사요법이나 당뇨병 약으로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원만한 성생활을 영위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은 어떻게 발기부전을 유발하는가?

정상에서는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성기로 들어오는 혈관이 충분히 굵어져 피가 성기로 많이 몰려 들어오고, 이 피가 해면체에 스며들어 부풀어지고 또 단단해지게 되고, 또 들어온 피의 탈출경로인 정맥은 팽 막히게 되어 발기가 된다. 그러나 당뇨병환자는 당분이 피속에 많은 관계로 정상인에게는 생기지 않는 잡다한 물질로 혈관의 안쪽 벽과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의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어 당뇨병환자의 혈관은 부드러움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좁아지게 된다. 이런 현상은 남성성기로 가는 혈관에도 일어나며 특히 스폰지처럼 부드럽고 피가 잘 스며들어야 하는 해면체에도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 그러므로 피가 적게 들어와 발기가 단단하게 되지 않으며 또 되었다 하더라도 피가 술술 빠져 나감으로 발기상태를 유지 못하고 중간에 사그러진다.

이러한 혈관의 변화들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하게 감촉을 느껴야 할 성기 주변의 감각신경과 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에도 이상을 초래하여 마치 반신불수 환자에서 신경이 끊기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초래된다.

그 외에도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 2형 당뇨병이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고환의 기능이 감퇴되어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남성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는 물질이 증가하고, 배도 나와 점점 허리둘레가 굵어지고 몸 안에도 지방이 축적되는 비만이 초래된다. 즉 당뇨병에 의한 발기부전은 신경계, 혈관계, 심지어 내분비계에 생기는 여러 이상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결과인 것이다.

발기부전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발기부전의 원인은 내분비계, 신경계, 혈관계의 이상으로 초래됨으로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내분비계로는 남성호르몬과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뇌하수체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을 검사하기도 한다.

신경계통의 이상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히 하는 검사로 사람이 자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발기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야간음경팽창검사, 성기의 감각을 측정 할 수 있는 음경진동각 검사를 시행하며 좀 더 자세한 검사로는 각종 유발전위검사를 들 수 있다.

또 혈관계의 이상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성기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성기에 부착하고 야한 비디오를 보면서 성기가 얼마나 굵어지고 단단해 지는가를 볼 수 있는 시정각자극 검사, 성기에 피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들어오고 나가는 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음경 도플러초음파검사, 직접 성기로 가는 혈관의 굵기와 모양을 볼 수 있는 음경혈관 촬영 등 수많은 검사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검사의 특징과 필요성을 자세히 열거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며 독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실제로 이 많은 검사 모두를 시행하기에는 시간이나 경제적인 면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환자는 자신의 발기부전의 원인을 꼭 밝혀 몸의 이상 여부를 알고 싶고 또 다른 환자는 그저 월 2회 정도의 부부생활만 영위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 환자의 개개인이 생각하는 치료의 목표를 중시해서 필수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발기부전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제일 처음 시도하는 치료로는 최근에 각광을 받는 비아그라, 씨알리스, 레비트라 같은 먹는 약을 들 수 있다. 이 약들은 음경의 혈관을 구성하

는 근육세포를 이완시켜 혈관을 크게 해서 음경으로 들어가는 피를 많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약들의 효과는 비교적 좋아 80% 정도의 환자가 이들 약을 복용 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부작용으로는 초반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에는 심장에 심각한 이상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당뇨병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심혈관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좀 더 주의 깊게 복용하여야 한다. 친구로부터 얻어먹거나, 시중에 떠도는 국적 불명의 약들을 사탕 먹듯이 사서 복용하는 것은 이 약이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전문 치료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눈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현재 자세한 연구를 시행중이다. 그 외에 부작용은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경구약이 나온 후 치료빈도가 줄었지만 발기를 유발하는 약제를 단독 혹은 몇 가지 섞어 환자에게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쳐 주고 집에서 스스로 성관계를 갖기 직전에 자기 음경에 주사하는 음경해면체 자가주사요법이 있다. 치료효과가 좋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발기가 되고 유지할 수 있으나 자기 성기를 찢러야 한다는 부작용과 간혹 발기 후 4~6 시간이 지나도 발기가 지속되는 음경지속발기증이 생길 수 있고 같은 부위를 많이 주사하면 음경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그 외 치료로는 음경에 원통을 대고 원통 내의 공기를 빼내면 음압이 생겨 음경내로 피가 빨려 들어오고 들어온 피를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진공 물리기가 있으나 자연스러워야 할

성관계에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므로 배우자의 이해가 필수적이고 당뇨병환자에 많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멍이 들거나 피가 고이는 단점이 있다.

제일 확실한 치료는 음경해면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적 방법이 있으나 고가이고 원래 자기의 발기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결점이 있다. 그 외에도 혀 밑에 발기유발제를 넣는 설하제와 음경을 자기 스스로 찢러야 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나기 위해 같은 약을 은단처럼 만들어 요도에 넣는 약이 개발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약물은 일회용으로 완벽한 치료가 아닌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다. 물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그 고통이 없을 때와 같이 완벽하게 회복이 가능하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현대 의학으로도 풀 수 없고 또 풀었다 하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근접 못하는 범위가 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발기부전의 원인인 당뇨병도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몸도 회복되나 치료를 게을리 하면 다시 혈당이 올라가지만 일회용 치료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발기부전이 초래되어 원만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거나 주사약, 수술 등으로 환자가 성기능을 되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면 일회용 치료가 아닌 세상 어느 치료보다도 값어치 있고 훌륭한 치료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앞서 열거한 치료제는 간혹 메스컴에 나오는 최음제나 마약과 다른 약으로 습관성이 전혀 없으니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남사스럽게.... 뭘! 제 2형 당뇨병의 경우 발생 나이가 늦으므로 고령층에 발생할 수 있어 이 범주에 드는 환자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발기부전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40세 이상의 남성중 반 이상이 겪는 흔한 병이고 숨길 필요가 없는 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성 평균수명이 2002년 기준으로 73.4세로 OECD 국가 중 평균수명의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이런 추세라면 17년 후인 2022년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그러면 60세는 옛날 개념의 환갑을 맞은 영감님이 아니라 아직 못 해본 것도 많고 못 가본 곳도 많은 아직 젊은 연령층이 아닌가? 실제로 환자 분들 중에 차트에 적혀있는 연세와 실제의 모습이 상상이 안가는 젊게 보이는 분도 많이 계신다.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중년이상의 나이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이런 환자들은 발기부전 치료도 필요 하겠지만 그 외에도 남성갱년기라고 하여 매사 의욕이 없고, 근력도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부부관계는 물론 성욕도 전 같지 않은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남성갱년기 환자들에게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남성호르몬 보충요법 치료를 받으면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젊은이 같은 노년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옛말에 병은 숨기지 말고 남이 알게 하라는 말이 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남성성기능장애 전문의를 찾도록 한다. 성이 개방된 외국사회에서도 환자는 물론 이를 치료하여야 할 의사도 환자에게 먼저 성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의 배우자는 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성생활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이란 문제는 맛있는 음식과 마찬가지로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인생을 즐겁게 하는 중요한 낙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성기능은 자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인 만큼 의사를 찾아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아서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하면 한 가정, 나아가 한 사회가 더욱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병원을 찾기를 권유한다. ㉞

<본문 용어풀이>

해면체 : 포유류의 음경이나 음핵의 주체를 이루는 발기조직. 해면체는 주위가 탄성섬유를 함유하는 두 겹고 튼튼한 결합조직의 막으로 싸이고, 이 막이 내부로 들어가 있어 해면상의 작은 방을 이루고 있다. 이 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부에 정맥혈이 들어 있다. 이것이 해면양정맥총이다.

프로락틴 : 뇌하수체 전엽의 산호성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포유류에서는 유선의 발육, 유즙분비, 황체자극, 전립선과 정낭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고프로락틴혈증을 일으켜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유즙분비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 불임·월경불순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뇌하수체호르몬 : 뇌하수체에서는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대부분은 체내의 어떤 분비선에 작용하여 그 분비를 촉진시킨다. 즉, 뇌하수체호르몬은 내분비계 전체를 조절하는 구실을 한다. 특히 전엽은 생식선·갑상선·부신피질에 작용하여 종족보존이라는 생물의 기본적 기능과 직접 결부되어 있다.

갑상선호르몬 : 척추동물의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몇 종의 호르몬 물질이 밝혀져 있으며, 생리작용으로는 세포 내의 이화작용을 촉진하고, 총대사량을 증가하여 체온을 높이며, 뇌의 흥분성을 강화한다.